

선교 편지 (2021년 7월) -고동욱, 고사라 선교사(일본)-

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 습기가
많아 끈끈하고 축축한 장마가
지나고 이제는 가만이 있어도 땀이
나는 뜨거운 여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만 보다는 이곳
여름이 낮지만 그래도 건조한



캘리포니아에 익숙한 저희에게는 아직도 힘든 계절입니다. 그래도
이곳 요코하마 사람들은 이곳이 다른 지역보다는 덜 덥고 덜
추워서 날씨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벌써 한해가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추워서 봄을 기다리던 때가 어제 같은데 한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저희의 소식을
전합니다.

노아인터네셔널 학교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 4월에 모든 학교들이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오고, 또 여러 학년에서 새로운
학생들이 등록해서 학교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작년보다 학교에 더욱 많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앤드류
선교사는 46학년 부담임을 맡게 되었고, 초등부와 고등부 코딩
수업, 고등부 성경수업, 고등부 IT 기술수업과 중등부 기술수업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만지는 것마다 고장내던 앤드류
선교사가 이곳에서 기술수업으로 아이들과 만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선교사는 23학년
부담임을 맡게 되었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영어수업과 초등학교 특별수업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과도 좀 가까워지고 일어로 아주 가벼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서 학교에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의 큰 상처들을 입은 아이들을 사연들을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한 주를 분주하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저녁에는 다음 수업을 준비하며 바쁘지만,
그래도 언젠가 이 아이들 데리고 선교지와 아웃리치를 가는 꿈을
꾸며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40일 기도와 찬양 집회

작년 말부터 오사카에서 있을 40일 기도모임을 매주 기도모임을
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이 준비 모임을 통해 이사야 55장 8-9절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
넘기에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YWAM 타카즈끼 베이스는 우리가 기도 중 받은 환상과
동일한 곳 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은 공간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그 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모임을 위해 미국에서 한국에서 팀들이 일본으로 와서 같이
찬양과 기도를 하기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계획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일본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상황을 보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모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모르지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8월에 3주간 저희는 오사카에 가서 일본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채워 주심

모든 것을 정리하고 대만으로 SBS(School of Biblical Study)수업을
들으러 떠날 때,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기대가
많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니던 직장을 마지막으로 그만
두며 정말 모든 필요들이 채워질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한 칸에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9개월의 수업을 들을 때도, 일본에서
1년이 넘게 거주하면서도, 하나님은 저희 부부의 필요를 언제나
채워 주셨습니다. 종종 산책하면서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세세한
인도하심에 놀라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8월에 오사카
40일 기도모임에 가기 위해 차량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부에게 일본분이 쓰시던 차량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또 차량 관련해서 몇몇 분들이 헌금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사카에 다녀올 수 있는 여행경비가 헌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듯 언제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저희가
가는 방향에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곳에서 어느
한 분은 선교사님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옆에서 보고 듣게 된다고 하셔서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삶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저희에게도 종종

신기하기도 하고 무슨 은혜인가 놀랍기도 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주위에 많은 일본인들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타소식

· 월요일 오전에 노비노비노바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기독교 재단 유치원이지만 믿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 새학기에도 계속 부탁을 받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고로 좋은 신 분이네 누구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이요!" 라고 대답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 했습니다. "God is so good" 이라는 영어 찬양도 가르치며 어린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 매주 월요일 학당이라고 하는 방과 후 학교에 영어를 계속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많이 친해져서 길거리에서 만나도 너무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면 기쁨이 됩니다. 저희가 선교사인 것을 알기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 중 하나는 같이 식사를 하며 교재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식구(食口)라는 한자가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의 의미가 있는데, 일본은 식구라는 한자어가 없고 가족(家族)이라는 한자만 사용합니다. 이곳에 와서 식구라는 단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문화는 같이 먹음으로 가까워지는데 그 것이 참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될 때 마다 주위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식이 이 곳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한식을 같이 먹으면 많이들 좋아합니다.

· 교회 잔디 깎는 일, 선교사님 집 수리하는 일, 교회 독거노인 가드닝등 이런저런 일들을 다양하게 도우면서 인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매주 월요일 저녁 패밀리 그룹이라고 교회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저희 집에서 모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요새는 줌으로 모임을 이어가고 있고 한달에 한번 저희 집에서 식사와 함께 교재를 나눕니다. 점점 서로의 어려움에 대한 알아가며 같이 기도하면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현지 생활은?

일본은 한달 예정으로 대만으로 가는 길에 들렸는데,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어 버렸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저희는 소원하던 선교사가 되었고, 이제 일년 차 선교사로서 선교사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항상 선교사를 보내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반대의 입장이 되니, 다른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뭔가 집이 온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일본에 왔다고 하면 주위분들이 2-3년을 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잘 적응하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합니다. 아직은 일본어 대화가 어렵지만 그래도 영어로 깊은 교재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본인 일처럼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기도제목

- 8월 3주간 오사카 40 일 기도모임에 참석하러 갈 계획입니다. 가고 오는 길과 기도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올림픽 기간 중 백만시간 기도운동이 일본에서 있습니다. 세계

어는 곳에서 참석이 가능합니다. 같이 참여하여 일본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8월 한달은 학교가 방학기간 중 잘 쉬고 또 개학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작년에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부탁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무기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올해안에 문이 열리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일본어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일본어에 많은 진척이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제는 이렇게 저렇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변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